광주·전남 IT전문인력 없다

전국 비중 1%도 안돼 … 88%가 수도권 몰려 '인력쏠림' 심화

'한국 IT인력 지도' 분석

광주·전남 IT전문인력의 전국 비중이 1%에도 미달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0.6, 0.2%에 그쳐 두 곳을 통틀어도 경남(1.0%)에도 못미쳤다.

이는 직장인을 위한 인맥 구축 서비스 링크나우(www.linknow.kr)가 소프트웨어 반도체 인터넷 통신 전기전자 제조 등 IT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 2만5381명의 직장 분포를 분석한 결과다.

링크나우는 이 내용을 담은 '한국의 IT 전문인력 지도'를 27일 발표했다.

IT전문인력의 전국분포에서 전남은 0.2%로 제주(0.2%)와 나란히 전국 최하위였다. 광주도 0.6%로 10위에 머물렀다.

반면, 전국 IT 전문인력의 88%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66.5%가 서울에 몰려 있고, 경기도 20.2%, 인천에 1.3%가 분포했다.

IT 전문인력의 수도권 집중도는 IT를 제외한 금융 건설 기계 등 다른 분야 전문인력의 수도권 집중도(69.3%)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에서 IT 전문인력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전체 인력의 18.9%가 집중돼 있으며, 서초구가 8.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성남시(5.9%)와 서울 구로구(5.2%), 영등포구(4.7%), 금천구(4.1%) 순이었다.

수도권 다음으로 IT 전문인력이 많은 곳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이었지만 전국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시·도별 IT전문인력 분포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서울	66.5	충남	1.1
대전	2.1	경북	1.0
부산	2.0	경남	1.0
인천	1.7	충북	0.7
대구	1.3	전북	0.5
광주	**0.6**	강원	0.4
울산	0.3	**전남**	**0.2**
경기	20.2	제주	0.2

〈단위:%, 자료:링크나우〉

부산(2.0%)·대구(1.3%)·울산(0.3%)도 IT 전문인력이 매우 적었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를 합친 구로디지털밸리일대의 IT인력은 전국 대비 비중이 9.3%로,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친 테헤란밸리 일대의 비중(27%)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광주의 한 IT업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편중개발된 수도권에 IT업체들이 다수 포진한 탓에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주도할 IT 인력 양성과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등 혜택이 없을 경우 지역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중대형아파트 거래 활발

상반기 2억이상 1402건 …지난해보다 42%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는 2억원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사랑방신문이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총 1만3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069건보다 7.8% 증가했다. 이 중 실거래가를 공개한 아파트 1만1244건을 분석한 결과, 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모두 14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6건보다 무려 42.2%나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해 온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미분양 아파트를 떨어내려고 분양가 인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으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GS건설, 진흥기업, 대림산업, 한국건설 등 대형 업체들은 '선납할인', '층별 차등 할인' 등을 내세워 분양가를 최대 25%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또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발코니 무료 확장, 가전제품 무료 설치,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격대별로는 5000만~8000만원 아파트가 3022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5000만~2억원 1900건(16.9%), 8000만~1억원 1861건(16.6%), 1억2000만~1억5000만원 미만 1114건(9.9%)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1~85㎡ 아파트가 4862건으로 전체 43.2%를 차지했다. 이어 40~60㎡ 4346건(38.7%), 86~135㎡ 1473건(13.1%), 136~165㎡ 294건(2.6%), 40㎡ 미만 233건(2.1%), 165㎡ 이상 36건(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1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0건보다 24.3%나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 상반기 최다 거래아파트는 광산구 장덕동 진흥 더루벤스로 329건이 매매됐다. 이어 양림동 휴먼시아1단지 332건, 신용동 첨단자이1단지 147건 등이었다.

최고가 아파트는 남구 봉선동 더쉴2단지로 전용면적 188㎡(5층) 아파트가 올해 3월 6억2370만원에 거래됐다.

서구 쌍촌동 상무힐스테이트 191㎡(3층)는 지난 4월 6억986만원에 팔렸고, 봉선동 한국아델리움1단지 156㎡(17층)는 5억8000만 원, 포스코더샵 179㎡(9층)은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강도 中企대책' 나온다

이 대통령 지시 후 관계 부처 납품단가 인하 등 보완책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7일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위 당국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반적인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업종이나 분야에 따라 온기가 바닥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우선 서비스업과 영세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전통적인 '레드오션' 분야에서는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지만,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만큼 되돌려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신형 '아반떼' 출시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 (프로젝트명 MD) 제품 설명회 및 시승회가 2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양승석 현대차 사장이 신형 '아반떼'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품 중대 결함 강제 리콜 조치

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는 정부 차원의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된다.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제품안전사고 조사단'도 운영된다.

기표원은 28일 과천 기표원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합뉴스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 DTI규제 부분적 보완"

금융위 부위원장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분적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생길 수 있는 애로요인을 좀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DTI 규제 문제도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캐피털사의 고금리 신용대출 문제와 관련,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지, 불건전한 행위는 없는지 분석하고 외국의 캐피털사와 비교도 하고 있다"며 "햇살론이 출시돼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다만 저소득층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자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아 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하반기 주요 기업 1만3475명 채용

대기업이 절반 차지

올 하반기 주요 기업의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이 중 절반은 대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87곳 가운데 하반기 채용을 확정한 308곳의 채용 예정 규모는 1만34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이들 308개사의 올 상반기 채용 인원보다 33.6% 많은 것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순위 1~30위에 속하는 대기업 16곳이 올 하반기에 5420명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전체 채용 계획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들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17.7%나 증가했다.

매출액 순위 31~100위에 포함된 38개사의 채용규모는 2305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4.0% 늘어났다.

반면 매출액 301~400위 60곳은 작년 동기 대비 채용규모가 39.1% 줄고, 401~500위 75곳은 2.4% 감소할 것으로 조사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 하반기의 업종별 채용규모는 전기·전자 부문이 3920명, 금융 2597명, 식음료 1408명, 건설 1230명, 유통·물류 1016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68.31 (-0.76)
▼ 코스닥지수	487.74 (-0.40)
▼ 금리 (국고채 3년)	3.86% (-0.02)
▼ 원·달러 환율	1,181.50원 (-9.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